

高レベル廢棄物處分場

美國에너지省, 3個候補地 選定

— 處分問題解決에 進一步 —

美國에너지省(DOE)은 작년 12월 20일 高레벨 放射性廢棄物의 候補地로 3개 부지를 선정하고, 이들 부지에 대한 環境影響報告書草案을 一般에게서 코멘트를 求하기 위하여 發表하였다.

앞으로 부지주변의 주민 등과 合意形成이 課題이기는 하나, 美國은 高레벨廢棄物處分問題의 解決을 위해서 進一步했다고 評價할 수 있을 것이다.

美國 最初の 高레벨廢棄物處分地(1個所)의 후보지로 에너지省(DOE)이 5個 候補地에서 3個 候補地를 선정하였다(네바다州, 텍사스州, 워싱턴州 各 1個所). 이들 부지에 관한 環境影響報告書草案은 90일간 일반에게서 코멘트를 求한 후 대통령에게 권고된다. 이 일정에 의하면 「1982年 放射性廢棄物政策法」의 규정보다 약 3개월이 지연된다. 이 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권고후 60일 이내에 이것을 승인하기로 되어 있다. 대통령의 승인후 DOE는 3個 候補地의 현지에서 公聽會를 개최한 후 각각의 부지에 길이 300~1,200m의 새로운 坑掘削을 포함한 부지의 상세한 조사를 한다.

廢棄物政策法에 의하면 대통령은 1987년 4월까지 최초의 처분장을 지정하고, 原子力規制委員會(NRC)는 1988년중에 건설의 可否를 결정

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의 일정은 이 법에서 정해진 것보다 조금 늦어질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 일정의 지연의 要因이 될 수 있는 것은 州知事나 현지 주민의 반응과 環境보호파의 訴訟이다.

최초의 立地點으로 대통령이 指定한 부지를 갖는 州의 知事は 이것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州知事の 거부는 聯邦議會가 상하원 공동으로 이것을 번복하는 決議를 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또, 3개 후보지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 후 부터 부지의 최종지정까지 동안에 2회에 걸쳐 立地地點에서 公聽會가 열리는데 이것도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한편, 環境보호단체는 「DOE는 廢棄物 問題解決을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公衆의 건강이나 경제성, 環境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제9연방순회법원에 DOE의 부지선정계획 중지를 요구하는 訴訟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DOE의 高레벨放射性廢棄物處分 候補地 選定에 대해서 美國原子力産業界는 조용하면서도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美國原子力産業會議(AIF)는 「政府가 廢棄物法에 정해진 요구를 냉정하면서도 또한 능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하고 있다.